

# 오늘 익산 'NS푸드페스타' 개막

### 27일까지 합일읍 하림 퍼스트키친서... 요리 경연·컨퍼런스·전시·체험·시식 등 풍성

전국 최대 규모 식품문화축제 'NS푸드페스타 2024 in 익산'이 축제 참가자 맞을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익산시와 NS홈쇼핑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합일읍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하림퍼스트 키친에서 'NS푸드페스타'를 공동 개최한다.

익산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행사인 만큼 '최고의 맛을 함께 보고, 먹고, 즐기는 식품 축제'라는 가치를 내걸고 축제장 규모를 확장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

행사 첫날은 총 1억 원 상당의 상품이 걸린 전국 최대 요리 경연을 비롯해 '영세프랜차이즈', '전북의 신선한 식재료'로 대결을 펼치는 '프레쉬마켓' 등 참가객의 눈을 즐겁게 하는 특색 있는 경연이 진행된다.

27일에는 식품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식품 컨퍼런스와 부대행사가 이어진다. 식품 스타트업 경진대회와 식품 세미나, NS입점 설명회 등 동반성장을 위한 교류의 장이 펼쳐진다.



또한 26~27일 이틀 간 축제 현장에서는 익산 대표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상생식품관을 비롯해 미래의 공유주방을 둘러보는 '미식투어', 하림그룹 브랜드전(展), 다이로움 성공 취업 박람회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진행된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창업 푸드마켓과 익산 대표음식점인 대물

림맛집 12개소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시식회, 하림 프레쉬마켓 등 다채로운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시식·판매 부스도 상시 운영된다.

특히, 다이로움 취업박람회와 청년 창업 푸드마켓, 대물림맛집 시식회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의 가치를 더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NS푸드페스타'는 지자체와 민간기업, 학술단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국내 유일의 거버넌스형 식품축제다. 식품산업을 매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가 식품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데 NS푸드페스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식품 홍보와 체험, 문화, 관광의 융복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익산이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벼멸구 확산방지 긴급 방제 나서

### 약제살포비·방제약제 지원... 방제 면적 36ha에 대해 ha당 20만원

익산시가 벼멸구 확산 방지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 농협을 통해 농가에 벼멸구 방제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발생한 벼멸구가 일부 확산할 것으로 판단해 전체 방제 면적을 36ha로 예상하고, ha당 20만원의 약제살포비와 방제약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발생상황 조사와 농가의 적극적인 방제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3일과 19일 지역 벼 재배지 전 면적에 대

한 예방 활동을 펼쳤다.

예찰 결과 벼멸구 피해를 입은 집중 고사 현상 농지를 약 10ha로 파악하고 2차에 걸쳐 긴급 방제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익산시는 벼멸구가 주로 벼 밀도에 서식하므로 방제 시 벼대 아래까지 약액이 닿도록 충분히 약제를 살포하거나 분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농약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수확 2주 전에는 방제를 마칠 것을 당부했다.

류숙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벼멸구 확산 방지를 위한 예비비 긴급 투



입이 농가 피해 최소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신속 방제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대학 입시 고민 덜고 진학 성공 돕는다

### 28일 오후 2시, '익산시 고등학생·학부모 입시 설명회' 개최

명품교육 도시 익산시가 지역 입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대입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시는 익산사랑장학재단이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모현도서관 1층 시청각실에서 '2024년 익산시 고등학생 및 학부모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입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고 올바른 진로·진학 방향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오는 28일 설명회는 (주)종로 아카데미 입성호 대표가 '2026학년도 대입전형의 이해 및 효과적인 입시전략 수립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입 대

표는 다년간의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전략을 제시해 대학 입시에 막막함을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을 시원하게 해소할 예정이다.

강연은 △입시 전형의 종류와 특징 △수도권 수시·정시전형의 변화 △의대 증원에 따른 입시 변동 △무전공 선발의 중요 특징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분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참여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익산사랑장학재단 누리집(www.ilsaf.or.kr)을 참고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2025년 신규 시책 발굴 보고회

### 강영석 부시장 주재로 보고회 진행... 신규 시책 53개 검토

익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구현을 위해 내년도 시책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5일 강영석 부시장 주재로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규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반영할 총 53개의 신규 시책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 계획과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함께 모색했다.

주요 시책에는 시민 안전을 위한 △안전체험 교육 한마당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지원 사업 △송학동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 기반 시설 확대를 위한 △함라산 자연휴양림 재정비사업 △구룡마루 대나무 활성화 사업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익산시 집집마다 경관 개선 사업 △구름·출렁다리 설치 사업 등이 검토됐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귀농 청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 △논 지엠(Non-GMO) 유채종자 수매보상 △황등시장 먹거리 특

## 지역 소식통



### 군산시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군산시치매안심센터가 25일 전주시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2024년 치매우수프로그램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군산시치매안심센터는 △소득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자체예산을 확보해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원거리에서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분소(대이면 2곳) 운영 △찾아가는 치매초기검진 사업 활성화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렇게 치매예방 및 관리에 힘 써 온 점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시민참여위원회, 새만금 현장 답사

### 새만금33센터 방문... 사업계획·추진상황 공유·간담회 개최

군산시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대상으로 25일 새만금 현장 답사를 추진하였다.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한 위원회(위원장 윤승조)는 새만금 사업계획과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새만금 산단을 거점으로 한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자율주행 모빌리티(운행수단) 등 미래 신산업 창출 △하늘길·바닷길·육지를 잇는 국제 교통망 구축 계획 등 새만금 발전 단계별 이행안 설명에 주의깊게 귀를 기울였다.

아울러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추가 산업단지 조성의 당위성 △신항만과 남북 3축 등 새만금 사회 기반시설(SOC) 사업의 조속하고 정상적인 추진 필요성을 공감했고 지역 역량을 모아나갈 뜻을 밝혔다.

이후엔 동서 2축과 남북 2축을 따라 이동하며 신항만, 수변도시, 농생명 생태융지 등 새만금 사업 현장과 사업 공정을 살폈다. 아울러 많은 시민이 현장을 다녀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홍보 사업을 펼쳐 나갈 방침도

### 군산시, 미세먼지 신호등 7곳 시범 설치

군산시가 25일 유동 인구 밀집 지역에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군산시 대기측정소에서 받은 대기질 정보를 24시간 실시간 알려준다.

특히 오염물질 농도에 따라 파란색(좋음), 녹색(보통), 노란색(나쁨), 적색(매우 나쁨)의 총 4가지 색상과 표정 이모티콘(그림말)을 표시해 대기 상태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한다.

이번에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는 △공설시장(역전사거리) △월명체육관 △롯데마트 △롯데대 △근대역사박물관 △예술의전당 △시외버스 터미널 등 모두 7곳이다.

군산시는 10월 1일부터 미세먼지 신호등을 정상 가동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